



부안 농어촌공, 경영회생 등 농지매입사업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원중)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및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은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한다는 것.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농지 확보에 어려운 농가에게 베풀어 이의 타작을 재배 조건으로 장기 임대를 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부안지사는 201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383ha 1,240여 원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후계농, 2000세대, 후계농업인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시 중화산2동, 완산병커서 역사·문화체험

전주시 중화산2동주민센터(동장 김용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대곤)는 25일 관내 중산·태평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완산병커에서 역사와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할플레이스인 체험학습 장소로 완산병커를 방문해 과거의 방곡호의 어두운 이미지 대신 참단 미디어 아트가 펼쳐진 우주 신비의 세계 탐험, 라이브스케치, 동작 따라하기 등 감각적인 시·청각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완산병커의 최신 미디어 장비와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아동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즐거움을 느꼈으며 아동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권희성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한식 등 직업교육훈련 수료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6일 조리 직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업교육훈련 '한식·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4월 7일부터 50일간 총 200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식 조리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구인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 기간중에 '취업인식 전환 교육'과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특강을 통해 서비스 직종 직무에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신감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줬다.

특히 교육기간 중에는 유관기관 및 급식업체 인사담당자와의 일자리협력망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훈련생에 대한 수료 후 취업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업체에는 교육수료생에 대한 채용 연계 가능성을 논의해 향후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기초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용지면, 지평선 아카데미 체험의 날 성황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기(회) 지평선 아카데미 체험의 날을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용지면 이장 협의회의 이선 회장이 용지면을 대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라인댄스 교실 회원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김제 시민들에게 화려한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이선 회장은 풍요로운 대지 위에 땅과 정성으로 농사를 지으며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키우는 농민의 마음을 용지면에 비유하며, 농심(農心) 용지면의 현황과 지역 특성, 주요 행사, 주요 단체 등을 소개하며 김제 시민들의 큰 박수와 함성 속에 발표를 마쳤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김제 시민들에게 용지면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면민들이 용지면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꿔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1일 1가구 소통 적극돌봄 행정 펼쳐

남원 도통동,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까지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도통동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으로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단순상담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민간 자원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해 적극돌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도통동은 총 1076가구를 방문하여 공격급여 신청, 주거환경 개선, 건강상담 및 이웃돕기 헌물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약 1150건의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했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통동은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연계하여 총 13개의 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SNS소통채널 구축, △도통사랑나눔센터 운영, △1인가구 1:1 사랑나눔 고리, △따뜻한 한끼, 행복한 밥



상, △신규 주민등록증 자연발급 ZERO!, △따뜻한 동행, 재능기부 서비스 △은 실천으로 큰사랑 나누는! 청소년 봉사단 △어르신 몸도 마음도 튼튼! 건강사업 △더 안전한 무선리보전 전동 설치사업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행복가득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사업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니드비티플러스, 순창군에 1000만원 성금 기탁

(주)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가 26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주)유니드비티플러스 국내산 목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국내 자원 활용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해마다 명절성금 지원, 학대피해이동 후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육천요양원의 3,500만원 상당의 노후 마루를 지원 교체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상준 대표는 "기업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순창군 산불 피해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 돕는 것에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왕희 기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2025 희망나눔 지역복지' 13년째 협약

군산시와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이 26일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이 2013년부터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잇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화에너지의 누적 지원금은 총 3억9,800만원 규모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도 4,500만원의 후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기억연한 봉사활동 △기초 소방시설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후원 물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의 마련과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와 한화에너지의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두용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고창북중, 우리학교 '보물을 찾아라' 프로그램 운영

고창북중학교(교장 정용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학생 및 교직원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 학교문화 조성 및 건강관 토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6~26일 교육복지실에서 진행되었다.

우리학교 보물찾기는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그 이유를 적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찾은 보물은 친구, 선생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1인 1악기(우리학교의 자랑)였으며 자기자신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다.

가장 특별한 보물은 '우리 10대의 순간과 시간들(한번뿐인 소중한 시간)'과 '급식실 조리사분들(매일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이었으며, 가장 기발한 보물은 '남상분 택배기사님(항상 감사합니다)', '청소도우(우리학교를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 '운동장(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운봉읍, 투척용 소화기 40가구에 지원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가구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소화기는 사용법이 복잡하여 신체 기능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 그동안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운봉읍은 단기간에 하면 바로 진화가 가능한 투척형 소화기를 도입해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으며, 이날 읍사무소 관계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이장단은 각 가구를 방문해 소화기를 전달하고 사용법 설명과 함께 화재 시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으며,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영농차량 300여대 무상점검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26일 친환경유통사업단(안성면)에서 '영농차량 300여대 무상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영농철을 맞아 차량 점검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차량점검은 농협 네트워크 점검기술진이 참여해 차량 실내소독, 와이퍼교체, 워셔액 충전, 오일보충, 타이어공기압 체크 등 주요 항목을 정밀 점검하고 간단한 소모품 교체도 이루어졌다.

곽동열 조합장은 "이번 무상점검은 농업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노암동 지사협, 어르신 생신 축하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차미화, 민간위원장 염창길)는 지난 25일, 노암동이 파티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 사업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며 케이크 및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홀로 생신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신 축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생필품 전달, 인부 확인 및 건강 관리 독려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어르신은 "저처럼 몸도 마음도 아픈 노인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생일도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하며, 이 행복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에 햇감자 전달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수확한 햇감자를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 135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동면은 1일1가구 소풍방문 서비스 추진을 통해 홀몸어르신과 수급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직접 방문하고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협력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산동면 농촌지도사회(회장: 양용석)에서 어르신 돌봄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직접 수확한 감자 10kg 25상자를 기탁해 따뜻한 산동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 경로당서 영양 찰밥 봉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명숙)는 26일 관내 쌍용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30여 명을 모시고 정성 가득한 영양 찰밥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찰밥과 밀반찬 등을 차려드려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조명숙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워지는 날씨에 영양 가득한 찰밥을 드시면서 무더위도 날리고, 다가오는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영 인후1동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의 수고와 열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소외계층 밀반찬 지원, 관내 취약지역 청소 및 꽃 화단 가꾸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